

정후식 칼럼



논설실장·이사

“나는 길을 떠날 때만 사색할 수 있다. 내 걸음이 멈추면 내 생각도 멈춘다. 내 두 발이 움직여야 내 머리가 움직인다.” (루소) 유인원에서 갈라져 나온 인간이 네 발 보행을 포기하고 두 발 걷기를 선택한 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수’였다. 직립 보행과 두 손의 자유가 도구 사용과 언어·인지 능력 향상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걷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니체의 통찰 역시 과장이 아니다.

길을 걷는 것이 때로 영감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걷기를 체화하기 전까지는 실감하지 못했다. 걷기는 나아가 인간과 자연을 이어 준다. 대자연은 거닐다 보면 지친 몸과 마음이 절로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무는 산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사람은 정반대이니 들숨과 날숨의 절묘한 조화다. 그 숨결에 집중하여 걷다 보면 아득하게 있고 있던, 우리 모두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마을에서 마을로... 호남 문화 소통길

걷기의 가치에 새삼 눈뜨게 된 것은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를 관통하면서다. 팬데믹(대유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는 데 걷기 만한 게 없었다. 감염병에 대항할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답이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모델로 지난 2007년 제주에 올레길이 탄생한 이후 국내 곳곳에 걷기 좋은 길이 조성됐다. 해파랑길·남파랑길·서해랑길로 구성된 ‘우리산 둘레길’은 길이가 4500km에 달한다. 광주에도 무등산 자락을 따라 한 바퀴 빙 도는 무등길(60km)과 옛사람들이 도심에서 무등산 정상에 오르던 길을 복원한 무등산 옛길(23.2km), 도심 외곽을 연결한 빛고을 산

은펜칼럼



김창균 빛고을고등학교 교장

한 시인은 어린 시절 여름밤을 이렇게 노래하였다. “명석을 깔고 / 밖에서 자도 좋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 할아버지 아버지 순례 막둥이 모두 / 머리를 나란히 하고 먼 개구리 소리를 듣습니다. // 개굴 개굴 개굴 / 개개개 개개! / 개-굴 개-굴 // 지난해엔 형님과 같이 누워 들던 / 개구리... // 손을 들면 / 별하늘이 닿을 듯 한 따뜻한 밤입니다.” (유정 ‘개구리 소리 듣는 밤’) 매개한 썩불 연기 위에 반짝이는 별들과 함께 개구리 울음소리 들려오던 여름밤은 정감이 어려 있었다. 멀리 떠난 가족이라도 있다면 면에서 들려오는 청아한 개구리의 합창엔 애뜻함과 그리움의 흔적도 배어 있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흥부의 경우는 스톨다섯의 자식이 늘 배가고파 ‘어메 밥’을 제각기 외쳐대는 소리에 ‘비 오려 할 제 방죽에 우는 개구리 우는 소리 같다’고 닳두리하였다. ‘자식 입에 밥 떨어가는 것파 내는 물꼬에 물 들어가는 것만 큼 보기 좋은 것이 없다’는 옛말이 반증하듯, 자식들의 주린 모습에 걸치는 개구리 소리에 흥부는 오

기고



정석운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밥상 물기가 전례 없이 치솟는데도 우리 주식인 쌀 값은 끝없이 추락하면서 생산자인 농업인들은 소득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쌀(20kg) 평균 도매 가격은 4만 3700원으로 5만 7000원 안팎이었던 전년도 동월에 비해 20% 이상 떨어졌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가 6.0~7.0% 급등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난 2월과 5월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쌀 공급 생산 물량 27만 t을 사들였음에도 별다른 회복세를 보이고

‘무등’(無等)을 꿈꾸며 무돌길을 걷다

들길(81.5km) 등이 잇따라 조성됐다. 그중에서도 무돌길은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올레길 못지않은 반산반야(半山半野)의 명품 길이다.

무돌길은 단순히 무등산 둘레를 따라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붓집을 매고, 지계를 지고, 자손들 손을 잡고 걸었던 길을 복원해 연결한 것이다. 30여 개 마을과 마을, 계곡과 숲정이를 이어 주는 생활문화 소통의 길이다.

무돌길이 처음 열린 것은 지난 2010년. 중심계곡과 원호계곡 쪽으로 집중되던 탐방객들을 분산시키고, 정상만을 향한 수직적 등산이 아니라 수평적 탐방을 즐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자연공원을 확대해 보자는 게 그 취지였다. 무등산 보호 운동에 헌신해 온 김민주(사) 무등산무돌길협의회 상임의장과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1910년대 제작된 지도를 토대로 길을 개척했다. 무돌길이라는 이름은 백제시대 쓰였던 무등산의 맨 처음 명칭 ‘무돌피’에서 따온 것이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광주 북구 각화마을에서 출발해 담양과 화순, 광주 동구를 거쳐 광주역까지 수백 년 역사를 간직한 길들을 연결할 수 있었다. 의병운동과 동학농민운동, 학생독립운동의 자양분이 되었던 무등정신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애초 길이는 51.8km로 정했다. 여기에 2017년에는 광주역에서 전남대를 관통하는 ‘민주의 길’과 북구 ‘천지인길’을 거쳐 각화마을까지 8km를 추가해 무등산 자락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 볼 수 있는 환상(環狀)형 길이 완성됐다.

무돌길은 크게 16개 구간으로 나뉘며 남녀노소 누구나 사부자기 걸을 수 있다. 1길은 각화마을부터 시작하지만 경사도와 접근성을 고려하면 광주역(15길)에서 푸른길 공원과 대추여울(광주천)을 따라 역순으로 도는 것이 수월하다. 무돌길은 호남정맥을 기준으로 광주 북구·담양 쪽의 영산강 수계와 화순 쪽 섬진강 수계로 구분되는데, 북구·담양 쪽에서 오르는 길의 경사가 약간 더 가파르기 때문이다. 표고 차는 해발 200~400m가량.

그곳에는 인문의 향기와 역사의 숨결이 그윽하다. 무등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인 원호계곡 줄기를 따라 자리한 소쇄원·식영정·환벽당은 명양정 송순을 비

개구리 소리 듣는 밤

죽이나 처량했을까. ‘개구리 소리도 들을 탓’이라는 속담처럼 여름밤을 깨우는 개구리 울음소리도 마음에 따라 사뭇 다르게 다가온다. 그뿐이겠는가. 무심히 들던 개구리 소리가 순간의 계기로 막연한 상념의 벽을 티우기도 한다. 소설가 김소유는 ‘무진기행’에서 ‘마치 수많은 비단조개 껍데기를 한꺼번에 맞비빌 때 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나는 그 개구리 울음소리들이 나의 감각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수많은 별들보다 바뀌어져 있는 것을 느끼곤 했었다’라고 하였다. 청각 이미지가 시각 이미지로 전환되는 가운데서 안타깝게 멀거니 한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새삼 깨닫는 계기로 다가오는 것이다. ‘가가 거져 / 고교 구구 / 그기가. // 라라 러러 / 로료 류류 / 프리라.’ -한하운, ‘개구리’ 나병(한센병)으로 버림받아 유향하는 시인의 길가에도 개구리 소리는 지천이었겠다. 그런데 아마도 학교 앞을 지나는 순간, 교실이 떠나갈 듯 울려대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에서 건강했던, 소외되지 않았던 유년 시절의 추억이 소환되었을 것이다. 물과 물 양쪽에서 산다는 양서(兩棲)류의 특징을 살려 ‘가’와 ‘라’ 두 글자로만 개구리 소리를 표현했다는 작가의 변(辯)은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과 서러움을 감추는 기교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 어느덧 입추를 앞두며 개구리 울음소리 잦아드는 때

우리 쌀 소비 촉진에 국민적 동참을

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3차 시장 격리 발표에도 쌀값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다. 전례 없는 쌀값 하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수급 차질 등으로 작년 말부터 밥상 물기가 연일 오르는 상황에서 과잉 생산과 소비 부진이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쌀은 대부분 전량 자급하고 있어 외부 요인에 의해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쌀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쌀 소비 문제의 해결 방법은 없을까? 해외 원조는 수송 등 많은 부대 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쌀 소비 감소량과 생산량을 연동하여 늘리거나 줄이기도 힘들다. 소비량은 통계적으로 추정이 가능하지만 생산량은 가뭄·태풍 등 자연재해 유무에 좌우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과거 1980~90년대 냉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당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쌀을 수입한 적이 있고 지금 러시아처럼 과거 독일의 해상 봉쇄로 영국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등 식량이 무기화될 사례가 있어 무작정

롯데 사촌 김윤재, 석천 임역령, 소쇄원 양산보 등 호남 유림들이 교류하며 시를 짓던 시가문학과 계산풍류(溪山風流)의 산실이다. 방랑시인 김삿갓의 자취도 산재해 있다. 충효동 도요지와 북초지 마을, 동네 어귀마다 자리한 정자와 샘터에는 전통문화와 공동체 의식이 살아 숨 쉰다.

무돌길은 또한 나라가 위태로울 때 면연히 일어섰던 호남 의병의 활동 무대이다. 김덕령 장군을 기리는 충장사와 김태원 장군 전적비, 의병들이 넘어 다녔던 백남정재 등에 그들의 충혼의백이 서려 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지키려는 자기희생의 저향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 5·18민주화운동으로 타올랐다. 그 주 무대 역시 무돌길을 따라 이어진다. 무돌길을 ‘지구촌 민주화운동의 성지 순례길’로 조성하자는 취지로 지난 6월 전국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전국 무돌길 완주대회’가 열린 배경이다.

차별과 배제 없는 조화의 세계로

무돌길 걷기의 백미는 무등산 조망이다. 산자락을 따라 동서남북 한 바퀴를 도는 내내 변화무쌍하게 형상을 달리하며 길잡이이자 꽃대가 되어 준다. 부드러운 육산(肉山) 곳곳에 파격으로 얹혀 있는 주상절리, 서석·입석·광석대와 너널들은 신비감을 더한다.

무등(無等)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등급이나 차별이 없음이요, 다른 하나는 그 이상 더할 수 없는 정도를 가리킨다. 평등을 넘어선 무등의 세계, 비할 데 없는 경지다. 정상 상봉에 천왕·지왕·인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천지인삼재(天地人三才)가 하나이고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라는 인간 존중의 발로였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돌길을 걷는 것은 차등과 배제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조화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폭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지만 날모레면 입춘다. 걷기 좋은 사색의 계절이다. 무돌길은 혼자 걸어도 좋지만, 무돌길협회가 봄가을에 주최하는 무돌길대학에 참여하면 길벗들과 함께 해설을 들으며 완주할 수 있다. 무돌길의 ‘국가 숲길’ 지정은 추진하고 있는 주변 지자체들도 생태 환경과 안내 표지판, 탐방로 정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다. ‘어찌프기는 칠팔월 개구리’라는데, 생각 없이 이 시절을 지나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닌 처지가 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마저 개구리가 들으면 꽤나 서운할 말이다. 칠팔월 개구리인들 응당 할 일을 제쳐둘 리 만무하니, 시인 백석의 동화 ‘개구리네 한술밥’은 이렇게 시작한다.

가난하나 마음 착한 개구리가 쌀을 구하러 벌 건너 형을 찾아 나섰는데 길가 붓도랑에서 나는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 그래서 ‘닝름 뛰어 가보니 소시랑게 한 마리가 있어, 왜 우냐고 ‘뿌구국’ 물었더니 ‘발을 다쳐 아파서 운다’는 말에 배고픔과 바쁜 길을 잊어버리고 다친 발을 고쳐 주었다.

개구리는 물질적 빈곤 속에서도 낮은 이의 아픔이나 슬픔을 접했을 때 벌름 다가섰고, 자기와는 모양새가 전혀 다른 소시랑게의 말에도 뿌구국하며 귀 기울였으며, 아무리 제 일이 급해도 상대의 어려움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지녔다. 언어가 만나는 곤충들에게도 매한가지로 그저 어려움을 묻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따름이었다.

결말은 어땠을까. 개구리가 형에게서 베풀 말을 얻어 되돌아올 땐 이미 날이 저문 뒤였다. 어두운 길에서 개구리는 결국 넘어지고 마는데, 이후 이야기는 상상에 맡긴다. 다만 다음과 같은 훈훈한 마무리의 계기를 헤아려 볼 직하다.

“발을 받아 준 개똥벌레, 집을 쳐다 준 하늘소, 길을 치워 준 쇠똥구리, 방아 짚어 준 방아깨비, 밥을 지어 준 소시랑게, 모두모두 둘러앉아 한술밥을 먹었네.”

생산량을 줄일 수도 없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농업인 스스로 재배 면적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다른 한편으로도 쌀 소비가 줄어드는 원인은 많다. 맛별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경제 여건에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음식을 준비할 여력이 없어졌고 아이들도 밤늦게까지 학원 등을 전전하다 보니 아침밥 먹을 시간조차 없다. 결국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쌀로 된 음식을 더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쌀 반죽에 국내산 재료로 토핑된 피자, 우리 쌀 빵으로 만든 햄버거를 만들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쌀을 생산하기 위해 88번의 손이 간다고 하여 8월 18일을 쌀의 날로 정한 것을 참고해 매월 8일, 18일, 28일을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아침) 집밥 먹는 날’로 정하면 어떨까? 더불어 유명 셀럽과 연예인들이 쌀을 조리하고 섭취하는 모습을 의도적 노출하고 공익 광고로 제작하여 전 국민이 쌀 소비 촉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社說

‘투자 선도 지구’ 자은도 해양 관광 거점으로

신안 자은도가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공모사업인 ‘투자 선도 지구’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그제 지방 일자리 및 생활 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 공모사업 11건을 선정했다. 자은도의 지오 국제문화 관광단지 조성은 잠재력 있는 전략 사업을 발굴해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투자 선도 지구’에 단독으로 뽑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구에는 건물·유희·유희를 완화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78억 원의 국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안군과 지오컨소시엄은 자은도 38만㎡의 부지에 2838억 원을 투자해 호텔·리조트·복합문화센터를 갖춘 지오 관광단지를 지난 6월 개장했다. 지오컨소시엄은 앞으로 인근 54만㎡에 모두 8300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마리나, 세계 특화 거리 등을 확충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공모 사업 선정은 이처럼 자은도에

해외 첫 기념일 제정 5·18 세계화 초석 되길

해외에서는 최초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제정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매년 5월 18일을 ‘5·18 민주화운동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HR120)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본회의 통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원들 대부분이 결의안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현지 단체인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결의안 제정 준비위원회’는 주 의회 인근 하이엇 리젠시 세크리멘토 호텔에서 5·18 기념일 제정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한인 이민 1세대인 최석호 주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HR120’은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의 메카로 만들고 고군사 독재에 억눌려 있던 한국 민족에게 희망을 줬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의의를 담고 있다. 이번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결의안은 선구적이다. 주 의원들은 1980년 5월

無等鼓

우리나라 헌정사 최초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언론에 ‘도어스테핑’(Doorstepping)이라는 낯선 용어가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간단한 질문만 받고 있는 ‘약식 회견’을 일컫는다. ‘도어스테핑’의 사전적 의미는 취재원이 인터뷰를 꺼리거나 인터뷰 시간을 내어주지 않을 때, 다소 무례하지만 사전 동의 없이 취재원 집 앞에서 대기해 취재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어스텝’은 집 앞에 있는 계단을 뜻한다. 넓은 의미에선 꼭 집 앞이 아니라도 출근길 사무실 입구 등 중요 장소에서 취재원을 기다리는 것도 포함된다. 이는 기자들의 취재 방식으로, 대통령의 행위를 이르는 용어는 아닌 셈이다. 국립국어원은 ‘도어스테핑’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출근길 문답’ ‘약식 문답’ ‘출근길 문답’을 새로운 대국민 소통 방식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했다. 그동안 대통령 기자회견은 연례행사에 가까웠고, 대통령 발언은 대부분 대변인을 통해 전달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소탈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한 신안군의 성과를 정부가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1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은 그동안 섬 고유의 생태와 문화를 살린 독자적인 관광 마케팅 전략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주택지붕과 다리, 공공시설을 보랏색으로 꾸며 지난해 ‘제1회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된 퍼플섬, 반월도와 박지도가 대표적이다. 세계적 예술인들과 연계해 각 섬들의 고유한 매력을 발산하도록 하는 ‘1섬 1뮤지엄’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자은도는 지난 2019년 천사대교 개통 이후 1004뮤지엄파크, 세계 조계박물관, 60여 개의 모래 해변 등 다양한 관광자원 덕분에 매년 수십 만 명이 찾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연결 도로 등 기반 시설과 생활 편의시설 확충은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신안군과 자은도가 국내 해양 관광의 새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날을 과감하게 기념일로 제정하는데 뜻을 모았다. 해당 결의안은 5·18 민주화운동이 해외에서 처음으로 공식 기념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크다.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향후 미국 각 주는 물론 광주 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해외 도시에 시도 5·18 기념일 제정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는 누구나 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또한 대외적인 확산이 필요하다. 보수 단체의 술한 왜곡과 폄하에도 광주 정신으로 상징되는 5·18의 위상은 변할 수 없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이 아니라 한국, 나아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소중한 역사이다. 이번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의미 깊은 첫 발걸음이 5·18 세계화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관련해서도 주무 부처와 옛박자가 나는 답변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자들의 질문 시간과 수는 제한됐고, 민감한 질문은 아예 답변하지 않으면서 ‘대국민 소통’이 아닌 사실상 정치적 퍼포먼스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닌 ‘불통’이다. 국정 현안을 숙지하고 국민이 궁금해 하는 국정 철학과 정책 지향점을 정제된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진정한 소통이 아닌가 싶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